

# 지역고유의 상징성을 표현한 공동주택 계획 및 평가

- 경북 김천시를 중심으로 -

## Planning and Evaluating Public House with Symbolic Representation Of Regional Feature

박영미\*

최정민\*\*

Park, Young-Mi

Choi, Jung-Min

### Abstract

The residence plan of Korea has been formed with bias for quantitative growth and uniformity failing at obtaining human value. Also, rapid growth brought about severe problems of deteriorated human life and destruction of environment. The solution for these problems is pursued in many directions, but there is short of active plan yet. The residence shall develop into new direction to satisfy the demand by reflecting society and culture as well as residents. This study examines external design with symbolic representation of regional feature as an alternative for uniform residence environment problem. This study will be a basic data upon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planning high quality residence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elements which form external space of residence complex, designed plan for external space of residence complex, and examined how to reflect regional feature which is important element of local community and culture on the space plan for residence complex based on the evaluation by local residents centered on Gimcheon-si, Gyeongbuk which just started local specialty by fostering 'Special Area for Grape Industry.'

키워드 : 지역성, 상징성, 공동주택계획, 외부디자인

Keyword : Regional Feature, Symbolic Representation, Apartment Planning, Outdoor Design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주거계획은 양적인 성장위주로 형성되어 인간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획일화 되었다. 또한 급성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의 저하와 환경의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계획은 아직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양적인 공급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거의 획일화와 몰개성화가 이루어져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가지자는 지적이 있다.

주거는 거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도 반영해서 수요자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즉, 다양한 주거 유형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주거 계획에서는 지역적이고 시대적 변화요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요소로써 지역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지형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서적 동질감, 시간의 흐름, 그리고 주변 맥락과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지역성은 자연과 사회 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사회 환경 요소를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반영한 주거 계획은 효과적이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sup>1</sup>

\* 준회원(주거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학사과정

\*\* 정회원(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sup>1</sup> 서지은, 박의정(2006), 지역성을 고려한 주거단지 특성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 주거학회 논문집

본 연구에서는 ‘포도산업특구’를 조성해 막 지역 특화를 시작하고 있는 경북김천시를 중심으로 주거단지의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내용들을 파악하여 주거단지 외부공간의 계획을 디자인하고, 지역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주거단지의 공간계획에 지역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지역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획일화 되어가는 주거환경의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성을 표현한 외부디자인을 연구함으로써 지역성을 고려한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김천시를 선정하였다. 김천시는 중소도시로 전통적으로 한옥배치 형태로 볼 때 경상도는 폐쇄적이며 위계서열이 분명한 배치로 대의와 명분을 중시함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지역의 이미지 고취와 홍보를 위해 ‘포도산업특구’를 지정해 포도테마마을이나 포도 문화거리 조성을 개발이 막 시작되고 있다. 또한 시작단계로 많은 잠재력이 숨어있는 점 또한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 지역은 아직 주거 외부 계획에 있어 지역성 반영 미흡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개발로 지역적 특성을 더 부각시키고 현재 무미건조한 아파트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조사는 인터넷조사 및 직접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현장 방문 시에는 녹취작업, 심층인터뷰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1 차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20 대~ 80 대의 남녀)으로 선정하였다. 김천의 지역성을 반영한 계획인 만큼 실제 김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본 조사는 2008 년 7 월 5 일부터 7 월 6 일까지 총 12 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했다. 조사내용은 지역성의 구체적인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김천시민으로써 느끼는 지역적 상징물에 대한 질문 과 구체적인 지역성 계획을 위해 현재 아파트들의 문제점 인식 및 구체적 건축물에 지역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호감 여부, 그에 대한 방법에 문제로 이루어 졌다.

2 차 지역성을 반영한 단지 계획에 대한 실제 거주민의 설문평가는 지역성을 실제 반영한 조사대상아파트에 사는 거주민(20 대~ 80 대 연령)으로

선정하였다.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계획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쉬울 것이며,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2008 년 9 월 18 일부터 9 월 20 일까지 총 46 명의 거주민이 설문평가를 했다. 조사내용은 현재 아파트들의 문제점과 지역성에 대한 관심여부와 디자인 계획을 단지, 주동, 평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 II. 이론적 고찰

### 1. 지역성의 의미

지역(area, region)이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동질적인 지표이고 인간이 자연환경을 토대로 맺는 관계에서 그 지역의 독특한 유형을 구성한다. Breheny · Rookwood(1993)는 새로운 정주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에 지속 가능한 원리가 적용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증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정주지의 개발 방향은 그 모델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지역의 구분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지역의 구분<sup>3</sup>

지역	지리적	동질지역	지리적 현상이 공간 내 균등하게 분포하는 범위
		기능지역	중심지의 기능이나 활동이 미치는 세력범위
	행정적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지역의 구분은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성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도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범위가 하나의 마을이든 국가이든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성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거주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지역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인 성향을 반영한 현대성을 표출하고 더불어, 지역거주민들의 일반적인 요구나 디자인 콘텐츠를 고려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sup>2</sup> 대한국토·도시학회 편저(1998), 지역계획론; 이론과 실제,보성각,p522

<sup>3</sup> 대한주택공사(1996),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개발연구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 분석 및 1차 인터뷰 결과

##### 1) 김천 지역 및 단지 분석

지리적으로 김천은 소백산맥 바로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에 둘러싸여 형성된 분지로서 그 중심에 김천시가지가 들어앉아있는 형상이다. 도시는 하천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철도, 고속도로로 국도를 따라 길이방향으로 퍼져나간 소위 선형도시의 양상을 띄고 있다. 지형은 평지가 적고 예전에는 저습지와 야산들이었던 것이 시가지로 개발된 곳이 많아 지금도 도로가 경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주택들은 고지대까지 올라 붙은 곳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좁고 조밀하다고 할 수 있다. 위치상으로는 서울-부산 간의 중간지점이며 국도가 도시를 관통하고 있고 경북선 철도와 상주방면 국도, 거창방면 국도가 연결되고 있다.

조사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부곡동 W 아파트로 판상형 아파트들이 지어질 때 계획된 단지이다. 전체적으로 3m 정도 경사져 있으며, 8 개 동의 15 층 높이의 판상형 아파트가 2 옆로 늘어선 단지로 896 세대가 거주하며,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 합쳐서 세대 당 1 대씩 주차할 수 있다. 놀이터와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곳곳에 정자나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20m 와 25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주 출입구에 접하는 곳은 논밭이 펼쳐져 있다. 주동 사이사이는 주차장이며, 동선은 거의 직선형으로 알기 쉽게 되어 있다.

##### 2) 1차 인터뷰 결과

시민이 생각하는 김천시의 상징물은 포도와 자두였으며, 지역 상징물의 부각시키고 싶은 부분은 포도의 맛, 포도의 형태 및 이미지, 자연적이며 친환경적인 부분이였다. 지역 상징물은 반영한 사례를 접한 경험은 일부 지역 캐릭터나 상징탑을 접한 것 외에는 거의 없었다. 아파트의 지역성 도입에 대해서 지역의 특색과 김천 시민의 단결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김천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되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있었으며, 일부는 너무 심한 색채나 이미지 캐릭터 등에 치중하면 부담스럽고 나중에 싫증이 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 지역성 도입 방법의 제시로는 포도의 색채나 이미지를 형상화한 방법과 포도를 직접

심어 접하게 하는 방법, 포도를 이용한 프로그램 도입 방법이 제시되었다. 또한 아파트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파트 입면이 가장 많았고, 단지 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은 그늘이나 벤치 등 담소를 나누거나 사람을 만나기 좋은 곳이었다.

##### 3) 시사점

조사 대상인 김천 부곡동 W 아파트는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로 동선과 아파트 입면이 단조로우며 지상 대부분이 주차장이라 주민 생활을 위한 공간이 부족했다. 또 단지끼리의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보였다. 특색이 없고 주변 아파트들과 같은 형태로 같이 모여 있어 지루함을 느끼게 했다.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은 김천의 상징물이 포도나 자두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재의 획일적인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상징물의 도입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았다. 사람들의 성향을 통해 아파트 입면과 단지 내 공간 요소들에 지역성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포도를 주변에 식재 해 시야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과 포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일 것이다.

#### 2. 지역 고유의 상징성을 표현한 공동주택 계획안

##### 1) 디자인 전개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추출하고자 연관된 개념을 추출했다. 먼저 김천지역의 지역적 상징 아이콘은 포도로, 포도에서 연상되는 개념에 대한 구체적 요소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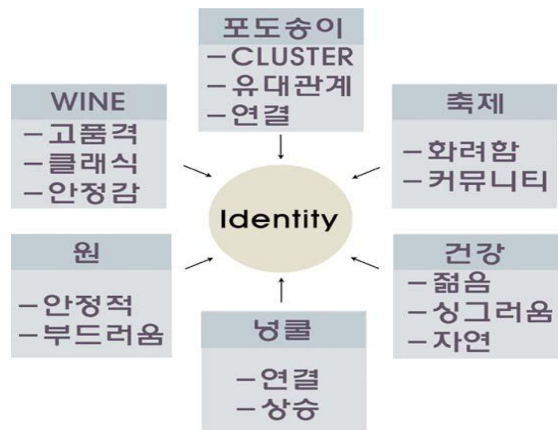


그림 1. 개념 및 이미지 계획

<그림 1>에서 나오는 개념적 요소들을 공간요소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림 2>과 같이 연상되는 위치에 연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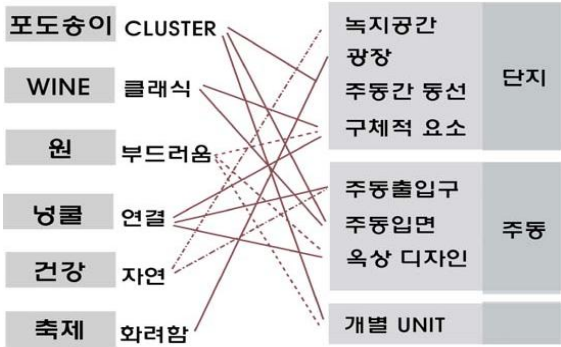


그림 2. 공간계획

또한 색채계획에 있어서 포도색은 보라색을 기준으로 다양한 색이 있는데, 먼저 바이올렛은 기독교적인 색으로 따뜻함과 자애를 뜻하므로 커뮤니티에 적용시키도록 하며, 퍼플과 휘아킨투스(Whiackintus)는 고대부터 황실의 전용품이나 사제의 옷으로 쓰였기에 고귀함의 상징이다. 따라서 퍼플과 휘아킨투스는 유니트 색에 적용시킨다. 또 와인색은 고급격이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단부 색채로 쓰도록 한다.

2) 단지 계획

단지 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인 동선은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넝쿨모양을 형상화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2~3 개의 주동끼리 배치하여 사이사이마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주차장은 출입구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만들어 모든 차를 지하에 주차할 수 있게 만들고 단지 내 지상에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단지의 한 가운데는 포도알의 원형을 모티브로 광장을 만들어 커뮤니티 센터와 쉼튼 가든, 노천카페와 야외갤러리를 즐기도록 만들었다. 또한 경사를 이용해 물이 흐르게 하여 광장에서 작은 연못을 이루어 친환경적인 공간을 계획했다. 전체적으로 포도를 모티브로 한 외부공간계획과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며, 나아가 외부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유도했다. 이는 <그림 4>에서 나타난다.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단지 내 세부 요소들에도 포도의 모티브를 부여했다. 주동의 층수계획은 10 층과 15 층, 18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총 세대수가 408 세대로 현재 단지의 세대 수 보다 부족하지만 대신 아파트를

고급화시켰다. 도로사선제한과 인동거리에 관련되어 최대한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했으나, 세밀한 부분까지는 미흡하다. 디자인 개념의 위주로 계획되었음을 명시한다.

표 2. 포도의 모티브를 딴 단지 내 세부 요소

		포도펜스
		와인잔 휴지통
		포도나무 쉼터
		포도 사인보드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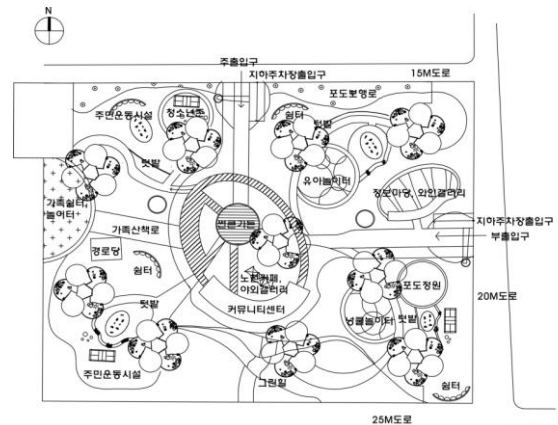


그림 3. 지역 상징물인 포도를 고려한 단지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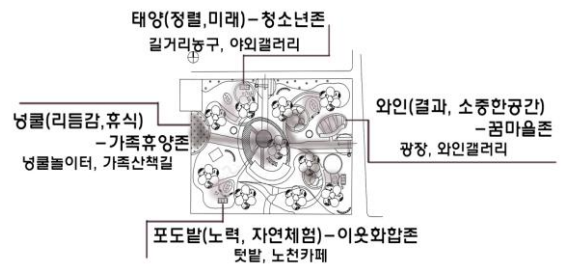


그림 4. 포도를 모티브로 한 외부공간 계획 및 프로그램

3) 주동계획

<그림 5>에서 보듯이 주동의 각 층은 코어를 중심으로 3 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으로 안정감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며 전체적으로는

포도송이의 형상을 나타낸다. 각 층의 주호들은 올라가면서 엇갈리게 되며 입면으로는 각 층의 옥상부가 그 위층의 정원으로 쓰이게 된다. 전문가의 견해로는 층고는 보통 2.9~3m 가 되는데 여기에 정원을 두게 되면 겉으로 보나 안에서 보기에 답답해 보일 수 있다 하여 층고를 더 높이거나 녹지를 줄이는 방법 또한 언급되었다. 색채 계획에 있어서도 포도의 색인 보라색을 기준으로 고귀함을 나타내는 퍼플과 휘아킨투스의 색을 사용하고 기단부는 안정감을 주는 와인색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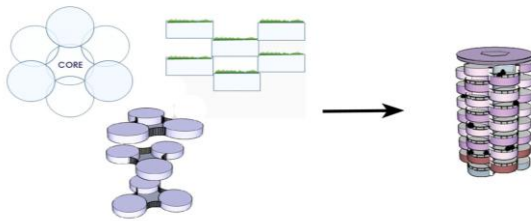


그림 5. 주동 계획

4) 평면계획

각 층은 코어를 중심으로 3 호 조합이며 원형평면을 이룬다. 각 층의 옥상부는 위층의 개별정원으로 쓰이게 된다. 요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평면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었는데 A 타입은 싱글,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거실과 침실이 연결되어 있고 개별의 취미 룸이 한 개 있다. B 타입은 3~4 인 가족용으로 취미 룸이었던 방은 가벽으로 2 개로 나누어 방 2 개와 마스터 룸으로 이루어졌다. 각 타입별 평면은 층별로 엇갈려서 올리거나 동별로 구분 할 것이다. 또한 구조에 있어서는 코어를 둘러싼 내력벽을 두껍게 하고 기둥을 세워 지지하도록 한다. 한 세대 당 면적은 129.53m<sup>2</sup> 이고 각 개별 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 9 장 119 조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연구와 같은 사례를 없었으므로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전문가의 견해로는 각 층이 엇갈리며 적층 할 경우 설비, 배관시설의 문제점이 언급되었으나 이는 현재 일본에서 연구되고 있는 상상배관의 개념<sup>4</sup>을 연구개발해서 도입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sup>4</sup> 급수, 급탕 설비를 비롯한 오배수 설비도 당해층 배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보수 등의 유지관리측면에서의 이점과 함께 수공간의 가변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 장수명 공동주택 연구단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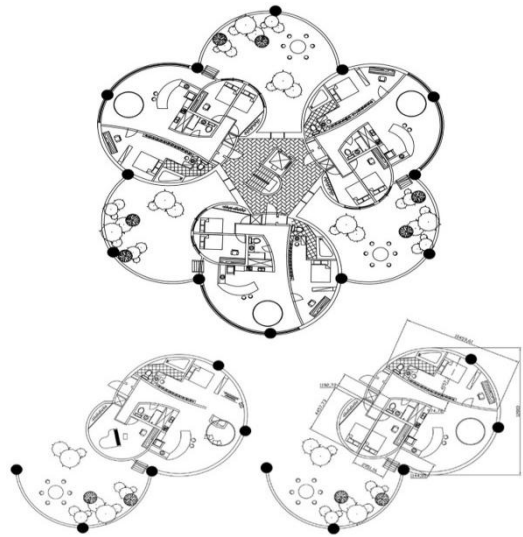


그림 6. 평면 계획

3.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에 대한 실제 주민의 설문평가  
지역성에 대한 관심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에서 최근 지역성을 살린 건축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67%가 긍정적이었고 33%가 부정적이었다.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물에 쉽게 이해하고 관심 있어 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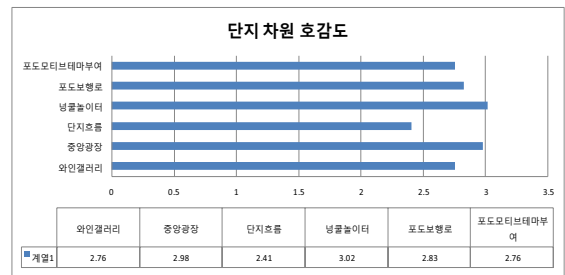


그림 7. 단지 차원 호감도

단지배치에 대한 각 항목에 호감도를 표시하게 했다. 가장 높았던 것은 포도의 모양을 과학적으로 접목시킨 닝쿨놀이터가 4 점 중 3.02 점으로 가장 높았고 포도알을 형상화한 중앙광장, 포도를 심은 포도보행로, 지역교류를 위한 와인 갤러리와 포도를 모티브로 해서 외부공간과 프로그램을 계획한 점, 포도 닝쿨을 형상화한 단지 흐름 순이다. 이로써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할 수 있는 순으로 호감도를 표시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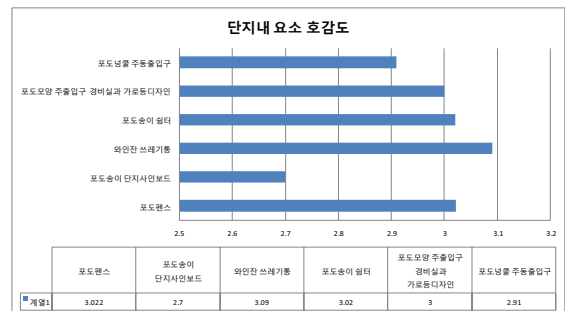


그림 8. 단지 내 세부 요소 호감도

단지 내 세부 요소들을 포도 이미지에 맞춰 디자인한 후 이를 4 단계로 나누어 호감도를 표시하게 했다. 가장 높았던 것은 4 점 만점에 3.09 점이었던 와인잔이 호응이 좋았고, 포도를 형상화한 펜스, 포도를 심어 여름에 포도가 열리게 하는 포도송이 쉼터, 포도의 원모양과 넝쿨모양을 형상화한 주출입구 경비실과 포도를 형상화한 가로등 디자인, 포도넝쿨을 올려 포도가 달리게 하는 주동 출입구, 포도송이를 형상화한 단지 내 사인보드 순이다. 주민들은 가장 알아보기 쉬게 포도를 형상화하고 위트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며, 직접 몸에 접하는 것이 많을수록 호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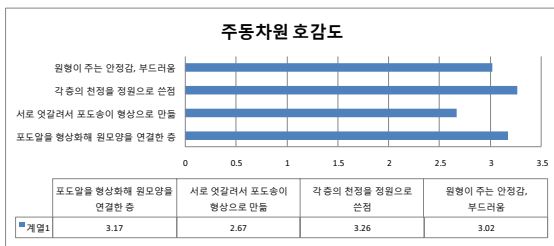


그림 9. 주동 차원 호감도

계획한 주동의 개념과 구조를 설명한 뒤 세부 항목에 대해 호감도를 표시하게 했다. 가장 호응을 많이 받은 부분은 각 층의 천정을 개별 정원으로 쓴 점이 4 점 중 3.26 점으로 가장 높았고, 포도알을 형상화하여 원모양을 연결한 층, 원형이 주는 안정감, 부드러움에 대한 호감도, 엇갈려서 포도송이 형상을 만든 것 순이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개인정원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으며, 펜트하우스에서나 접하던 개별정원을 각 세대에 부여함으로써 주거고급화의 인식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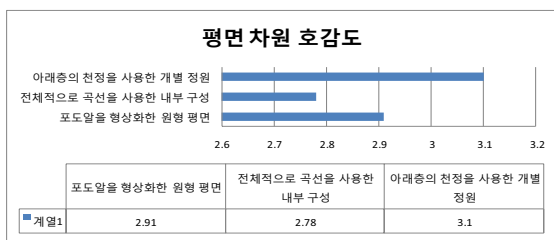


그림 10. 평면 차원 호감도

평면의 도면과 차별화된 특성을 설명한 뒤 각 세부 요소에 대해 4 단계로 나누어 호감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가장 호감도가 높았던 것은 개별정원이 3.1 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포도알을 형상화한 평면, 전체적으로 곡선을 사용한 내부구성 순이다. 곡선을

사용한 내부 구성에서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들어서 아직은 디자인보다 기능을 더 우선시 함을 알 수 있었다.

#### IV. 결론 및 제언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이나 실제 몸으로 체감하는 공간에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호응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의견에는 지역교류를 위한 와인갤러리는 외부인이 단지 내부에 출입해야 하므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넝쿨을 이용한 동선은 비효율적이며 지름길도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포도의 건강적 효과, 웰빙 개념도 많이 부각시켜주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너무 포도만 부각시켜 단지 전체가 포도에 덮힐까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포도나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나 거리위생 측면에서도 염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동그라미의 유니트 평면은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불편하고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역성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고 직접 접하면서 이해하기 쉬우면 호응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지역성을 도입한 단지계획은 주거환경 향상에 효과적이다. 또한 지역사업과 연계한 계획은 단지 특성화와 도시경관 향상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지역성의 긍정성을 입증하는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주거단지내의 지역성의 도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활발한 지역성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우수아파트평가제의 하나의 요소로 도입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역성을 도입한 지역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서지은·박의정(2006), 지역성을 고려한 주거단지계획의 특성분석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 이정호 외(2005), 주거단지 설계지침에 나타난 지역성 적용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 대한국토·도시학회 편저(1998), 지역계획론
4. 대한주택공사(1996),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개발연구